

“죽기 전에 건강해진 딸을 보는 것이 평생의 소원입니다.”

- 신장 장애를 앓고 있는 딸을 돌보는 장연순(가명) 어르신 이야기 -

장연순(가명) 어르신은 단칸 월세방에서 몸이 아픈 딸과 단둘이 살고 계십니다.

어르신은 6.25전쟁 때 이남하여 별 다른 연고도 없이 살아오신 분입니다.

전쟁 통에 졸지에 소녀가장이 되어 동생들을 부양하며 힘들게 살았고, 서른 살도 되기 전에 사별하여 어린 딸까지 혼자 힘으로 키워야만 했습니다. 어린 딸과 동생들 그리고 가난은 평생을 어르신을 따라다녔습니다.

그렇게 고생하며 키운 하나 뿐인 딸이 신장염이 발병, 20년 전 투석을 시작하게 되었고 몇 해 전에는 어렵게 모은 돈으로 신장이식 수술을 받았지만 거부반응으로 이식이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젊은 나이에 결혼도 하지 못하고 오랜 세월 투병하고 있는 딸이 안타까워 하루에도 몇 번 씩 눈물을 삼킵니다.

어르신은 딸이 아직 젊기 때문에 다시 신장이식 수술을 받는다면 이번에는 꼭 성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굳게 믿고 있습니다. 장연순 어르신의 유일한 소원은 죽기 전에 건강해진 딸을 보는 것 뿐입니다. 어르신의 바람을 함께 응원해 주세요.



보내주신 소중한 후원금은 장연순님 가정의 의료비로 지원되며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저소득 가정의
편안하고 건강한 노후생활을 위해 사용됩니다.

후원문의 : ☎ 02-3396-1004